

# 農村地域의 郵政施設 立地問題

허 우 공\*

본 연구는 농촌 지역의 공공 서비스 입지에 관한 시사를 얻으려는 취지에서, 局勢錄을 활용하여 전국 군 우체국의 이용 수준(1986-1992년)을 살피고, 경기도 김포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무주군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주민들의 우체국 이용 행동의 특성을 밝히려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읍과 시에 가까운 면에서 상위 중심지로의 지향성이 강하여 공공 서비스의 면단위 관할구역이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여 주민들의 활동공간에 世代差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결과는 중심지 체계로 본 위계와 상위 중심지 인접 여부를 현행 농촌지역의 우체국 설치 기준에 덧붙여 쓸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농촌지역의 공공 서비스, 우체국 입지 기준, 활동공간, 중심지 계층, 상위 중심지에의 근접성

## 1. 研究의 目的과 背景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郵政施設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 특성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어, 전국 차원의 분석과 사례 지역의 연구를 통하여 우정, 채신금융 등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공간적 특성을 밝히고, 농촌 주민의 통행범위가 현 우체국 관할구역과 어떻게 부합되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이 연구는, 여러가지 변화를 맞고 있는 농촌에서, 우체국처럼 그 이용에 있어 관할구역에 예속되지 않아야 되는 공공 서비스의 입지에 관하여 생각하는 기회로 삼는 데 그 의의를 둔다.

우리 농촌의 중심기능은 그동안 지속된 인구유출로 인해 크게 위축되고 말았다. 더구나 교통시설 개선과 자동차의 보급으로 왕래가 한결 편리해진 것이 뜻하지 않게도 이런 위축세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面級 中心地의 쇠퇴는 아주 심각할 정도에 이르러, 이제는 면사무소, 농협, 우체

국, 을 : 流어 면단 학고 재지 체로 서는

기사 5

한성사

2005-10-13

기사집 10. 28  
H5현경

한려대학교  
한려중권대전지점  
☎ (042) 253-4281 도청앞 삼성생명빌딩 1층

남아 있  
스들은 時  
다. 이러한  
위상에 어  
줄어들자  
은 일을 겪  
는 폐쇄와  
될 날이 오  
노재하는 우  
넘는 숫자  
운영 측면에  
지켜야 한다  
서비스에 관

농촌지역 우체국의 입지문제는 넓게는 郡의 행정구역체계의 문제, 그리고 遞信廳의 公社化 계획과도 맞물린다. 오래 전 도보교통시대에 만들어진 郡-邑·面-里의 3단계 행정체계가 지금에 와서도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학계를 비롯하여 널리 논의되고 있어(임석희, 1996 참조), 만약 행정구역 체제가 바뀌면 기존 제도를 따라 정한 공공시설의 입지도 재론되기 마련일 것이다. 체신청을 공사 체제로 바꾸는 문제 또한 농촌 우체국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이 논문은 199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997년부터 공사로 전환하려던 원 계획은 현재 유보 상태에 있기는 하지만, 우정관서가 정부 기관의 일부로 존속하는 것과 달리 공사로 바뀌게 되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채산성이 낮은 시설의<sup>1)</sup> 존폐 문제가 거론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농촌 지역의 공공시설에 관한 선행연구에는 인구가 희박한 농촌 지역 공공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간의 조화에 관한 논의(Joseph and Poyner, 1982; Nutley, 1984; Lonsdale and Enyedi, 1984)를 비롯하여, 數理的 模型이나 중심지 이론의 적용(Askew, 1983; Bach, 1980; Hodgart, 1978; Massam, 1980; Thiesse and Zoller, 1983), 조사방법론에 관한 연구(Massam & Askew, 1982; Smit and Joseph, 1982)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중심시설의 이용행동을 연구함에 있어, 소매업 등 민간부문의 기능들을 다룬 문헌에 비해 공공 기능 분야에 대한 연구 분량은 매우 적다. 우정시설 관련 연구에서도, 도시 별정 우체국 제도의 도입(김영평, 1993), 중심지 이론을 적용한 도시 우체국의 관할구역 설정(金英植, 1990), 대도시의 집중군 배치 문제(이현아, 1993; 高東熙·崔重凡, 1992) 등 도시 지역에 연구가 치우치고, 농촌 지역에 대한 관심은 찾아 보기 어렵다.

## 2. 研究資料 및 事例研究地域

### 1) 전국 우정시설에 관한 자료: 局勢錄

이 연구는 먼저 전국 범위에서 우체국 이용 상황을 분석한 다음, 사례 군을 택하여 좀 더 정밀히 살피는 순서를 밟는다. 전국 수준에서는 局勢錄을 이용하였다. 국세록은 각 우정관서별로 그 시설 및 우정, 체신금융 등 해당 관서의 1년간 운영 상황을 담은 방대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6년도와 1992년도 국세록을 이용하였다. 1986년은 국세록이 처음 마련된 해이며, 1992년은 이 연구가 시작된 시점에서 자료 사용이 가능했던 최근 연도이다.

본 연구에서 우정시설은 일반우체국, 별정우체국, 분국, 우편취급소 등을 포괄하는 뜻으로 쓰

인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분국과 우편취급소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일반우체국과 별정우체국이 주 고찰 대상이 된다. 군사우체국은 편의상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2) 사례 연구 지역

농촌지역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연구함에 있어 유념할 점의 하나는, 농촌이라고 해서 그 처지와 문제가 다 비슷할 수는 없다는 점일 것이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고, 정책적 대안에 있어서도 지역에 따른 다양한 처방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농촌지역 구분에 관한 선행 연구(李正煥, 1987 등)를 참고하여, 전국 농촌 지역을 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촌 지대, ② 대도시 근교, ③ 양자의 중간에 속하는 일반 농촌 지대의 3개 유형으로 나누고, 현지 조사의 편의 등을 감안하여 全羅北道 茂州郡, 京畿道 金浦郡, 忠清南道 洪城郡을 각 유형별 사례로 선정하였다.

사례 군의 조사는 1993년 가을부터 1994년초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군내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만 19세 이상 주민(고등학생 및 대학생 제외)에게 설문하였고, 추후 우편 설문조사를 통하여 보완하였다. 연구에 최종적으로 이용된 유효 설문 응답자 수는 무주군 998명(1991년 기준 20세 이상 인구의 4.1%), 홍성군 1,419명(2.1%), 김포군 1,324명(1.8%)이며, 응답자들은 全 郡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3개 사례 지역의 사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全羅北道 茂州郡은 산악지대로 이웃 군들과 왕래가 불편하고, 군내 읍면간 거리도 멀다. 1980년대에만도 인구가 35% 이상 줄어들었으며, 지금은 인구가 3만명이 조금 넘는 인구회소지역이 되었다. 茂州邑과 安城面 소재지가 각각 제1, 2위 중심지이며, 각 읍·면에 우체국이 1개소씩 분포하고, 덕유산 국립공원(설천면)에도 일반 우체국이 하나 있다.

忠清南道 洪城郡은 서부 충청남도의 중앙에 위치한 교통의 요지이다. 홍성읍은 인구 규모가 무주군 전체 인구에 육박할 정도의 큰 중심지이며,

표 1. 사례 지역의 우정 시설 분포, 행정구역 수 및 인구밀도

사례 지역	일반 우체국	별정 우체국	분국, 우편취급소	계 (1994년)	행정구역 수 및 인구밀도(1994년)
무주군	5	2	1(안성면)	8	1읍 5면: 52명/km <sup>2</sup>
홍성군	5	6	2(홍성읍, 홍동면)	13	2읍 9면: 242명/km <sup>2</sup>
김포군	5	3	1(김포읍)	9	1읍 7면: 349명/km <sup>2</sup>

군 남부의 제2의 중심지 광천읍도 인구가 2만명이나 된다. 각 읍·면에 우체국이 하나씩 분포하며, 사례 지역 중 별정 우체국의 구성비가 가장 높다.

京畿道 金浦郡은 동·남쪽으로 서울과 인천에 접하여, 양촌면과 김포읍에서 인천 방면으로 길이 잘 나 있고 서울시내버스가 김포읍까지 연장 운행되는 등 서울 및 인천과의 교통이 편리하다. 서북부 변두리 면을 제외하고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 군중 인구밀도가 가장 조밀하다. 김포읍과 통진면이 군내 제1, 2위 중심지이며, 역시 각 읍·면마다 우체국이 하나씩 분포하고, 김포읍에는 분국이 하나 더 있다.

몇 통을 발송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더 확대 해석하자면 우편 서비스를 위하여 몇 번이나 우체국에 다녔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우체국 대신 우표판매소에서 우표를 살 수 있고 우체통을 이용하여 편지를 발송하며, 한꺼번에 우표를 대량 구입하고 여러 통의 편지를 발송하는 일도 흔하기 때문에 1인당 원단위가 곧 바로 '1인당 통행 회수' 내지 '이용 빈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안점은 지역별 우정시설 이용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는 것이므로, 이용 빈도에 준하는 해석이 큰 무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 3. 全國의 郵政施設 利用 推移: 1986-1992년

이 장에서는, 局勢錄에 의거하여 전국의 모든 우정관서를 대상으로 그 이용 상황을 살펴려 한다. 특히, 시와 군의 우체국 이용 수준 비교, 郡 우체국 중에서도 중심지 계층 및 대도시 접근성에 따른 이용 수준 차이, 그리고 1986-1992년 간의 변화 등이 주 고찰 대상이다.

局勢錄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 각 우정 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센서스와 같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고객과 대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들, 즉 우표 판매(매), 수입인지 판매(매), 전신 접수(건), 우편물 접수(건), 현금 출납(건)을 골라, 관할구역내 인구를 고려하여 '1인당 ... 매수 또는 건수'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이 1인당 원단위들은 우체국 입장에서 창구 업무의 負荷量을 나타내는 지표이겠고, 관할구역내 주민의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한 사람이 1년동안에 '몇 장의 우표를 샀으며,' '편지나 소포는

#### 1) 全國 推移

국세록에 의한 전국적 우체국 이용 상황은 표 2와 같다. 이 표에는 비교의 목적으로, 전국 총괄 외에도 ①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의 6대 도시, ②인구 100만명 미만 규모의 도시, ③군에 소재하는 우체국으로 나누어 그 이용 수준을 실었다. 아울러, 이 표에는 '1인당 우편물 배달 건수'도 포함되어 있다. 우편물 배달은(사서함 이용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역 주민들의 통행과는 관련이 적은 지표이지만, 다른 서비스들과의 비교를 위하여 이 표에 포함시켰다.

표 2의 전국 부분을 보면, 1986-1992년 사이에 1인당 우표와 수입인지 판매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접수·배달된 우편물량은 매우 크게 늘어났다. 또한 1986년에는 1인당 접수한 우편물과 배달된 우편물 건수가 거의 비슷한데 비하여, 1992년에는 배달 우편물 수가 접수 건수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일반 주민들의 우편 수요는 큰 변동이 없으나, 근래 홍보용 인쇄 우편물 및 공과금 납부 고지서 등 대

량 우편물의 종류와 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가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sup>2)</sup>

현금 출납 건수 역시 6년 동안에 배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어서, 비록 은행이나 농·수·축협과 같은 금융기관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우체국의 금융 서비스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인당 전보 접수 건수는 1992년에 이르러 거의 무시할 수준(年 0.03건)으로 줄어드는 데, 이는 전신 업무의 대부분이 전화국으로 이관되고 경조전보 등 제한된 서비스만을 취급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2) 市와 郡의 利用 水準差

표 2의 중간 부분을 검토하면, 전반적으로 6대 도시 -> 시 -> 군의 순으로 그 이용 수준이 줄어들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다만 1인당 현금 취급 건수는 다른 지표들과는 逆順으로 군

소재 우체국에서 가장 많고 시와 6대 도시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규모가 작은 도시와 군에서 우체국의 금융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에서는 1986-1992년 동안에 거의 모든 지표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군 소재 우체국의 격차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이에 6대 도시 및 시 소재 우체국의 이용 수준을 각각 1.0으로 보았을 때 군 소재 우체국의 이용 수준 비를 구하여 본 것이 표 3이다. 가령, 1인당 우표 판매수를 보자면, 1986에는 군 소재 우체국이 특별·직할시 소재 우체국에 비해 약간 더 많았으나(1.04), 6년후인 1992년에는 0.80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을 보여 준다.

표 3으로 보아, 군 소재 우체국에서는 6대 도시 및 기타 시 소재 우체국에 비해 우표 판매, 수입인지 판매, 접수 우편물 지표에서 우체국 이용 빈도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표 2. 국세룩으로 본 전국의 우체국 이용 추이, 1986-1992년

대민 서비스	전국	6대 도시 소재 우체국	기타 시 소재 우체국	군 소재 우체국	군	
					읍 소재 우체국	면 소재 우체국
1인당 우표 판매(매)	1986 23.4 (증감 %) (+3.4)	22.5 25.6 (+14.6)	21.6 22.4 (+3.6)	23.5 20.4 (-13.1)	41.0 25.8 (-37.0)	15.5 17.5 (+12.8)
1인당 수입인지 판매(매)	1986 1.6 (증감 %) (-3.7)	1.8 1.8 (+0.5)	2.6 1.9 (-26.4)	0.8 0.9 (+9.3)	2.0 1.9 (-4.2)	0.3 0.4 (+21.8)
1인당 우편 접수(건)	1986 33.5 (증감 %) (+65.4)	43.3 71.5 (+65.2)	27.0 43.7 (+62.2)	22.6 36.7 (+62.3)	38.2 65.8 (+72.2)	15.5 21.0 (+35.0)
1인당 현금 취급(건)	1986 1.7 (증감 %) (+174.6)	1.1 3.7 (+245.4)	1.7 5.0 (+197.3)	2.7 6.3 (+131.4)	3.0 6.5 (+116.3)	2.6 6.2 (+138.7)
1인당 우편 배달(건)	1986 34.9 (증감 %) (+126.4)	37.8 92.6 (+145.2)	31.2 62.6 (+100.3)	32.7 68.3 (+109.0)	34.1 68.3 (+100.0)	17.9 68.3 (+281.7)
1인당 전보 접수(건)	1986 0.10 (증감 %) (-72.5)	0.10 0.03 (-72.7)	0.07 0.03 (-60.1)	0.12 0.03 (-76.4)	0.13 0.02 (-83.9)	0.12 0.03 (-71.8)

표 3. 도시 우체국 이용 수준을 기준한 군 우체국 이용 수준, 1986-1992년

지 표	6대 도시 소재 우체국에 대한 군 소재 우체국의 이용 비중		기타 도시 소재 우체국에 대한 군 소재 우체국의 이용 비중	
	1986	1992	1986	1992
1인당 우표 판매	1.04	.80	1.09	.91
1인당 수입인지 판매	.44	.50	.31	.47
1인당 접수 우편물	.52	.51	.84	.84
1인당 현금 취급	2.45	1.70	1.59	1.26

1986-1992년 동안에 우표 판매 지표에서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을 잘 알 수 있다. 1인당 현금 취급 지표에서도, 군부는 도시에 비해 우체국 이용 빈도 자체는 높지만 지난 6년 동안에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날로 위축되어가고 있는 우리나라 농촌 실상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3) 邑과 面의 利用 水準差

표 2의 오른 쪽에는 군 우체국의 이용 상황을 邑部와 面部로 다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읍과 면을 비교해 보면 우표 및 수입인지의 판매와 접수 우편물 수에서 두 지역의 차이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읍과 면의 우체국 위계가 달라서 우편물 취급 기능이 더 많이 부여된 읍 우체국의 서비스 분량이 많아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말고도 면 주민들

이 가까운 면 우체국을 이용하기 보다는 더 멀더라도 읍이나 인근 도시의 우체국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일 등 통행 행동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때문에 읍/면의 차이를 더 벌어지게 하는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거주 지역보다 계층이 높은 중심지를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는 점을 더 추적하기 위하여 전국 읍과 면을 다시 세분하여, 邑은 邑의 '중심읍', '2차 읍'(군에 읍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시에 인접한 읍'으로 나누고, 面도 '시에 인접한 면', '읍에 인접한 면' 그리고 시·읍에 인접하지 않은 '원격 면'으로 구분하여, 국세통 자료에 의거 1인당 우체국 이용 빈도를 분석하여 보았다(표 4). 읍, 면의 이용 수준 차이가 클수록, 그리고 도시와 읍에 인접한 곳에서 그 수준이 낮을수록 상위 중심지(시와 읍)가 군 주민의 우체국 통행을 그만큼 많이 끌어들이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

표 4. 전국의 읍과 면 우체국의 이용 추이, 1986-1992년

서 비 스		읍			면		
		중심읍 소재 우체국	2차 읍 소재 우체국	시 인접읍 소재 우체국	시 인접면 소재 우체국	읍 인접면 소재 우체국	원격 면 소재 우체국
1인당 우표 판매(매)	1986	36.5	25.2	49.7	12.7	14.9	17.6
	1992	33.0	27.4	19.4	15.0	17.1	19.5
1인당 수입인지 판매(매)	1986	2.7	1.1	1.6	0.3	0.3	0.4
	1992	2.4	1.1	1.7	0.4	0.3	0.4
1인당 우편 접수(건)	1986	52.5	30.0	27.0	13.2	14.9	17.4
	1992	92.3	46.6	47.7	18.3	19.8	23.7
1인당 현금 취급(건)	1986	3.5	2.8	2.5	2.0	2.7	2.9
	1992	8.6	6.0	4.7	4.8	6.2	7.3

다. 이 표에서는 최근 이용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든 전보 발신, 그리고 주민 통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배달 우편물 수는 표를 간명하게 만들기 위하여 제외시켰다.

표 4를 보면, 중심 도시로 우체국 이용이 치우치는 경향이 잘 드러난다. 우선 읍 사이의 격차를 살펴 보자. '중심읍 소재 우체국'의 이용 빈도는 우표 판매, 수입인지 판매, 접수 우편물, 현금 취급 건수 등 모든 지표에서 '2차 읍 소재 우체국'이나 '시 인접 읍 소재 우체국'보다 훨씬 더 많고, '시 인접 읍 소재 우체국'은 읍 중에서 그 이용 빈도가 가장 뒤떨어져 중심읍의 50-7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이들 읍이 비록 행정적으로는 다 같이 읍의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주민의 실생활에 관여하는 정도는 크게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면의 경우를 살펴 보아도, 시 인접 면 → 읍 인접 면 → 원격면의 순으로 우체국 이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어, 중심 도시(시와 읍)의 영향이 거리조락성을 띠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잘 볼 수 있다. 읍에 인접한 면보다 시에 인접한 면에서 자기 면 우체국의 이용 빈도가 더 적은 것은 중심 도시의 통행유인 정도가 도시 규모와 비례함을 보여주는 단서일 것이다.

#### 4. 事例 地域의 郵遞局 利用 狀況

이 章에서는 全羅北道 茂州郡, 忠淸南道 洪城郡, 京畿道 金浦郡을 사례로 삼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우체국 이용 상황을 일용품이나 옷 구매 등 다른 중심 지향 행동과 비교하여 그 공간적 특성을 알아내고, 또한 주민들의 나이, 교육수준, 직업, 기동성으로 보아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려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세등록 사례 군의 자료를 분석한 다음, 둘째 節부터는 현지 조사에 의한 자료를 살펴게 된다.

##### 1) 局勢錄으로 본 事例 郡의 現況, 1986-1992년

국세등록 자료의 우표 판매, 수입인지 판매, 우편물 접수, 현금 출납의 4개 지표를 대상으로

1986년과 1992년의 1인당 이용 수준을 분석하여 본 결과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제시된 각 사례 군의 '중심읍', '중심읍 인접면', 그리고 나머지 '원격면'의 우체국 이용 수준을 비교해 보면, 전국 차원에서 밝혀졌던 경향, 즉 중심읍의 이용 수준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 그리고 읍 인접 면의 이용 수준이 (중심읍의 통행 흡인 효과로 인하여) 원격 면보다도 오히려 낮은 점 등이 다시 한번 드러난다.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전국적 경향을 따르는 가운데, 세 군 사이에는 그 지역 사정을 반영하는 중요한 차이도 몇가지 볼 수 있다. 첫째, 산촌지역이고 인구가 적은 무주군은 접근성이 좋고 인구 규모도 큰 홍성군과 김포군보다 이용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차이가 지역의 인구, 경제적 여건과 통신 수요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단정하기에는 아직 일러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둘째, 무주군에서는 중심읍과 면의 격차가 홍성군이나 김포군의 경우보다 덜하다. 가령 우표 판매 매수의 경우를 본다면, 무주군에서는 읍/인접 면의 이용 빈도가 약 2 대 1의 비율이지만, 홍성군과 김포군에서는 각각 5 대 1로 훨씬 크게 벌어진다. 이는 지형 및 거리 등으로 인하여 무주군의 국지적 중심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김포군의 경우 읍 인접 면은 군내는 물론 다른 군과 비교하여 보아도 그 이용 수준이 가장 낮다. 예를 들어, 김포읍 인접 면의 1992년 접수 우편물량은 김포읍의 1/10, 원격면의 1/4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무주읍 인접 면의 1/4, 홍성읍 인접 면의 1/2에 불과하다. 이는 김포읍에 인접한 고촌면, 검단면, 양촌면이 서울시 및 인천시와도 접하고 있다는 사실과 큰 관련이 있을 것이다.

##### 2) 設問調査에 의한 現況

이 절에서는 사례 지역의 面 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우체국 이용 통행과 일상 생활에서의 구매 목적 통행을 비교한다. 이 분석에 쓰인 자료는 현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은 표본 자료이며, ① 우체국 방문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통행으로

표 5. 국세특으로 본 무주, 홍성, 김포군의 우체국 이용 현황, 1986-1992년

사례 지역 구 분	연 도	1인당 우표판매	1인당 수입인지판매	1인당 우편물접수	1인당 현금출납
<b>무주군</b>					
무주읍	1986	39.3매 (1.0)	2.10매 (1.0)	33.8건 (1.0)	4.8건 (1.0)
	1992	32.3매 (1.0)	3.24매 (1.0)	73.5건 (1.0)	12.8건 (1.0)
무주읍에 인접한 면	1986	18.9 (0.48)	0.38 (0.18)	40.7 (1.20)	3.6 (0.75)
	1992	23.2 (0.72)	0.29 (0.09)	32.4 (0.44)	9.8 (0.77)
원격 면	1986	20.7 (0.53)	0.19 (0.09)	20.8 (0.62)	2.8 (0.58)
	1992	28.2 (0.87)	0.11 (0.03)	31.0 (0.42)	8.3 (0.65)
<b>홍성군</b>					
홍성읍	1986	48.9매 (1.0)	3.66매 (1.0)	55.9건 (1.0)	3.4건 (1.0)
	1992	36.3매 (1.0)	4.66매 (1.0)	110.0건 (1.0)	31.3건 (1.0)
2위 중심지 (광천읍)	1986	29.3 (0.60)	1.07 (0.29)	36.7 (0.66)	3.9 (1.15)
	1992	26.5 (0.73)	0.78 (0.17)	49.4 (0.45)	7.4 (0.24)
홍성읍에 인접한 면	1986	10.2 (0.21)	0.20 (0.05)	10.1 (0.18)	1.7 (0.50)
	1992	15.3 (0.42)	0.13 (0.03)	15.3 (0.14)	3.9 (0.12)
원격 면	1986	12.2 (0.25)	0.28 (0.08)	12.8 (0.23)	2.6 (0.76)
	1992	15.9 (0.44)	0.09 (0.02)	19.3 (0.18)	6.8 (0.22)
<b>김포군</b>					
김포읍	1986	48.2매 (1.0)	4.51매 (1.0)	68.7건 (1.0)	4.4건 (1.0)
	1992	48.8매 (1.0)	2.39매 (1.0)	101.2건 (1.0)	9.3건 (1.0)
김포읍에 인접한 면	1986	10.1 (0.21)	0.27 (0.06)	6.9 (0.10)	2.0 (0.45)
	1992	9.8 (0.20)	0.02 (0.01)	8.4 (0.08)	6.8 (0.73)
원격 면	1986	23.9 (0.50)	0.37 (0.08)	29.2 (0.43)	2.6 (0.59)
	1992	25.2 (0.52)	0.07 (0.03)	36.4 (0.36)	9.6 (1.03)

주: 괄호 안의 수치는 중심읍 우체국의 이용 빈도를 1.0으로 간주하였을 때, 해당 면의 이용 빈도 비율 뜻함.

우표 구입, 편지 발송, 소포 발송, 예금과 공과금 납부, 그리고 ② 일용품 구매, 옷 구매, 가전제품 구매, 잔치용품 구매 등 일상 생활로 본 구매 목적 통행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1) 面 住民의 通行 目的 및 目的地別 通行率

표 6은 면 주민들의 통행 목적 및 목적지별 통행률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통행률이란 전체 표본 중 해당 목적으로 통행한다고 응답한 표본의 비율을 말한다.

표 6에서, 통행은 전반적인 통행률 분포로 보아 ①우표 구입과 편지 발송, ②소포 발송과 예금, ③일용품 구매, ④옷, 가전제품 및 잔치용품 구매 목적 통행의 4개 群으로 계층성을 뚜렷이

낸다. 즉, 우표 구입과 편지 발송의 경우에는 대체로 80% 이상 거주지 면내에 머물지만, 소포 발송과 예금 목적 통행에서는 거주지 면 밖으로 나가는 비율이 더 높아진다. 우표를 사거나 편지를 부치는 것은 집 가까이 있는 우표 판매소나 우체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포 발송, 예금, 공과금 납부 등의 경우에는 우체국, 농협, 은행 등에 몸소 가야만 하므로 그만큼 상위 중심지 지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용품, 옷, 가전제품, 잔치용품 구매의 경우는 중심읍 통행률이 우체국 이용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이는 면 소재지의 소매업 기능이 중심읍이나 시에 비하여 빈약하기 때문일 것이며, 여

표 6. 면 주민의 통행 목적-목적지별 통행률

군	통행 목적지	통행 목적별 통행률							
		우표 구입	편지 발송	소포 발송	예금	일용품 구매	옷 구매	가전제품 구매	잔치용품 구매
무주군	무주읍	6.4%	4.5%	8.2%	9.0%	21.1%	24.9%	27.7%	27.5%
	거주지 면	91.8	93.7	89.3	88.3	70.0	53.0	51.5	55.1
	군내 기타	1.1	1.1	1.1	1.1	0.2	0.2	0.7	0.2
	군 외부	0.7	0.7	1.4	1.6	8.7	21.9	20.1	17.2
홍성군	홍성읍	13.0	11.4	17.7	17.3	50.0	68.0	68.9	66.2
	광천읍	2.8	3.0	5.4	3.1	20.5	21.0	19.0	23.2
	거주지 면	81.0	82.2	73.8	77.4	27.4	8.2	8.9	9.3
	군내 기타	2.7	3.0	2.3	1.9	1.7	0.8	0.7	0.5
군 외부	0.5	0.4	0.8	0.3	0.4	2.0	2.5	0.8	
김포군	김포읍	6.6	7.4	9.1	10.8	9.4	13.7	14.1	12.8
	거주지 면	89.0	88.1	85.5	82.6	79.0	43.6	49.3	50.8
	군내 기타	3.7	3.6	4.5	2.8	7.9	9.2	11.1	11.4
	군 외부	0.7	0.9	0.9	3.8	3.7	33.5	25.5	25.0

자료: 설문조사에 의한.

기서도 중심지의 계층성이 뚜렷이 드러나 일용품 보다는 옷, 가전제품 및 잔치용품 구매에서 중심읍과 군외 목적지로 통행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4개 통행 목적군에 따라 통행률이 단계가 지는 경향은 비슷한 가운데, 각 군별 변이도 뚜렷하다. 홍성군에서는 인근에 홍성읍과 경쟁할 만큼 큰 중심지가 없기 때문에 홍성읍으로의 통행률은 무주읍이나 김포읍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군 밖으로 군외 목적이 가는 비율은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무주읍의 기능이 빈약하여 각 면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으며, 군외 목적지(대전, 전주시 등)로 가는 비율도 무주읍 통행률에 거의 맞먹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 김포읍 통행률은 우표 구입, 편지와 소포 발송 및 예금 목적의 통행에서는 무주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일용품 등 생활용품 구매 목적 통행에서는 김포읍 통행률이 3개 사례군 중에서는 가장 낮으며, 대신 군외 목적지 즉, 서울과 인천의 통행률이 읍 통행률의 2배를 넘는다.

(2) 中心邑에 隣接한 面과 遠隔 面의 中心邑 通行

군 중심읍 통행의 距離凋落性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하여, 읍 인접 면 거주자와 원격 면 거주자의 중심읍 통행률을 따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래프를 검토하여 보아도 역시 ①우표 구입과 편지 발송, ②소포 발송과 예금, ③일용품 구매, ④옷, 가전제품, 잔치용품의 순으로 가면서 중심읍 통행률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잘 드러나고 있다.

둘째, 통행 목적군 ①과 ②에서 인접/원격 면의 통행률 격차가 ③과 ④의 경우보다 더 두드러져서, ①과 ②에서는 무주군 약 2/1-3/1, 홍성군 3/1-5/1, 김포군에서는 2/1-3/1의 격차를 보이나, ③과 ④에서는 대체로 2 대 1 또는 그 이하이며, 김포군에서는 인접 면과 원격 면 사이에 차이가 거의 없다. 셋째, 홍성읍의 중심 기능은 매우 탁월하여 전반적으로 읍 통행률이 매우 높으며, 옷, 가전제품 등의 구입에서는 인접 면의 경우 90% 이상이 홍성읍으로 통행하고 있으며, 원격 면에서도 홍성읍 통행률이 50%를 넘거나 이에 근접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성격이 강한 무주군과 홍성군에서는 인접 면과 원격 면의 통행률 차이가 모든 통행 종류에서 잘 드러나는 반면, 이미 대도시 교외화가 상당히 진행된 김포군의 경우에는 인접/원격 면의 차이는 물론 4가지 통행 목적군의 통행률 구분도 쉽지 않다.

(3) 中心邑의 背後地 範圍

그림 1의 인접/원격 면 비교만으로는 통행행동의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

에, 각 군의 제1, 2위 중심지로의 통행률을 10단위로 지도화하여 보았다. 그림 2(무주군), 그림 3(홍성군), 그림 4(김포군)가 그것으로, 여덟가지 목적 통행을 다 표현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여 4개 통행목적군별로 하나씩, 즉 편지 발송, 소포 발송, 일용품 구매, 옷 구매 통행을 택하여 도화하였으며, 중심지 통행률 20% 미만은 편의상 표시하지 않았다. 지도에는 비교 목적으로 각 군의 2위 중심지의 배후지도 표현하였다.

이 지도들은 중심읍 배후지의 범위가 상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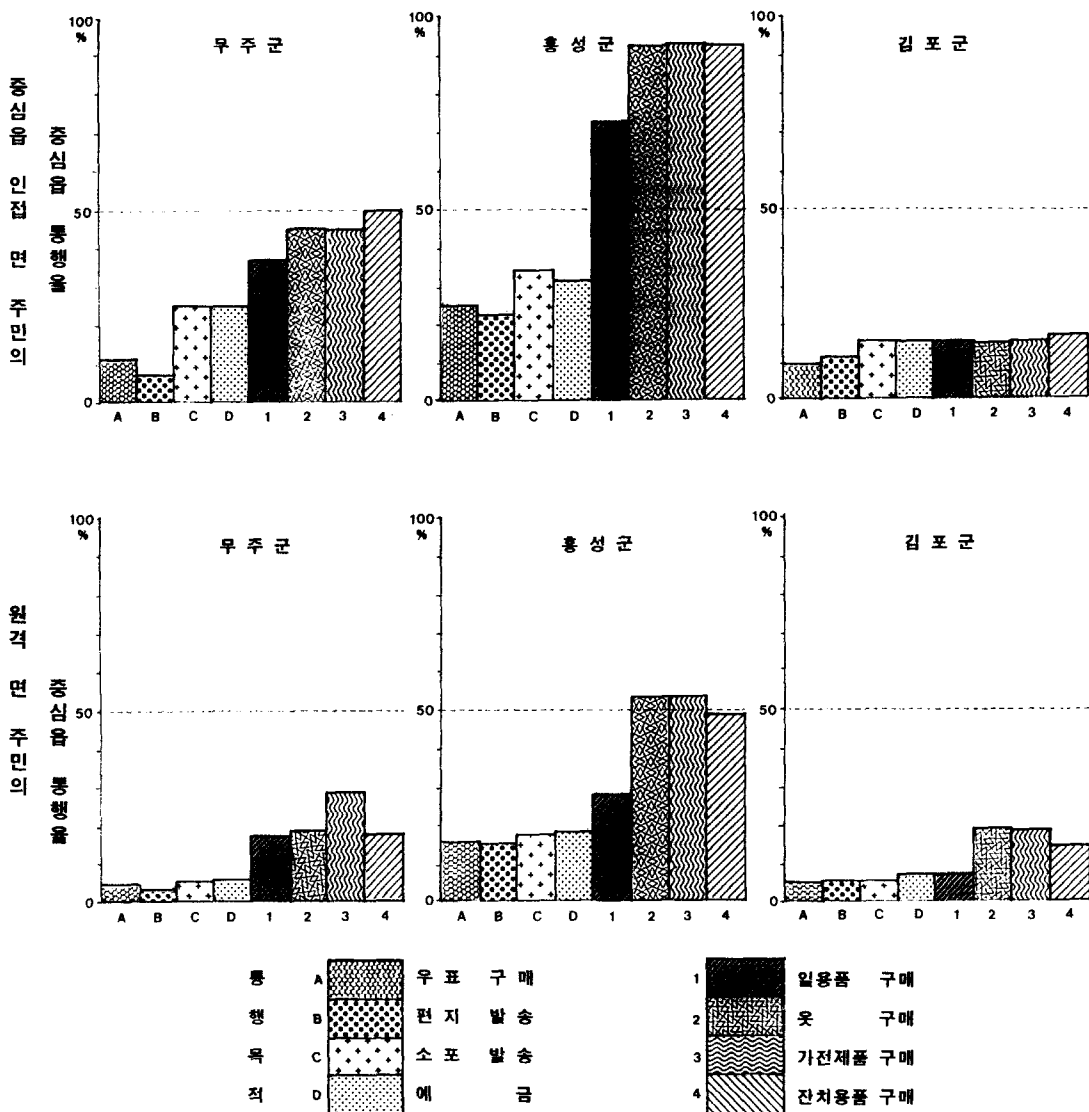


그림 1. 중심읍 인접 면과 원격 면 주민의 통행 목적별 중심읍 통행률

무 주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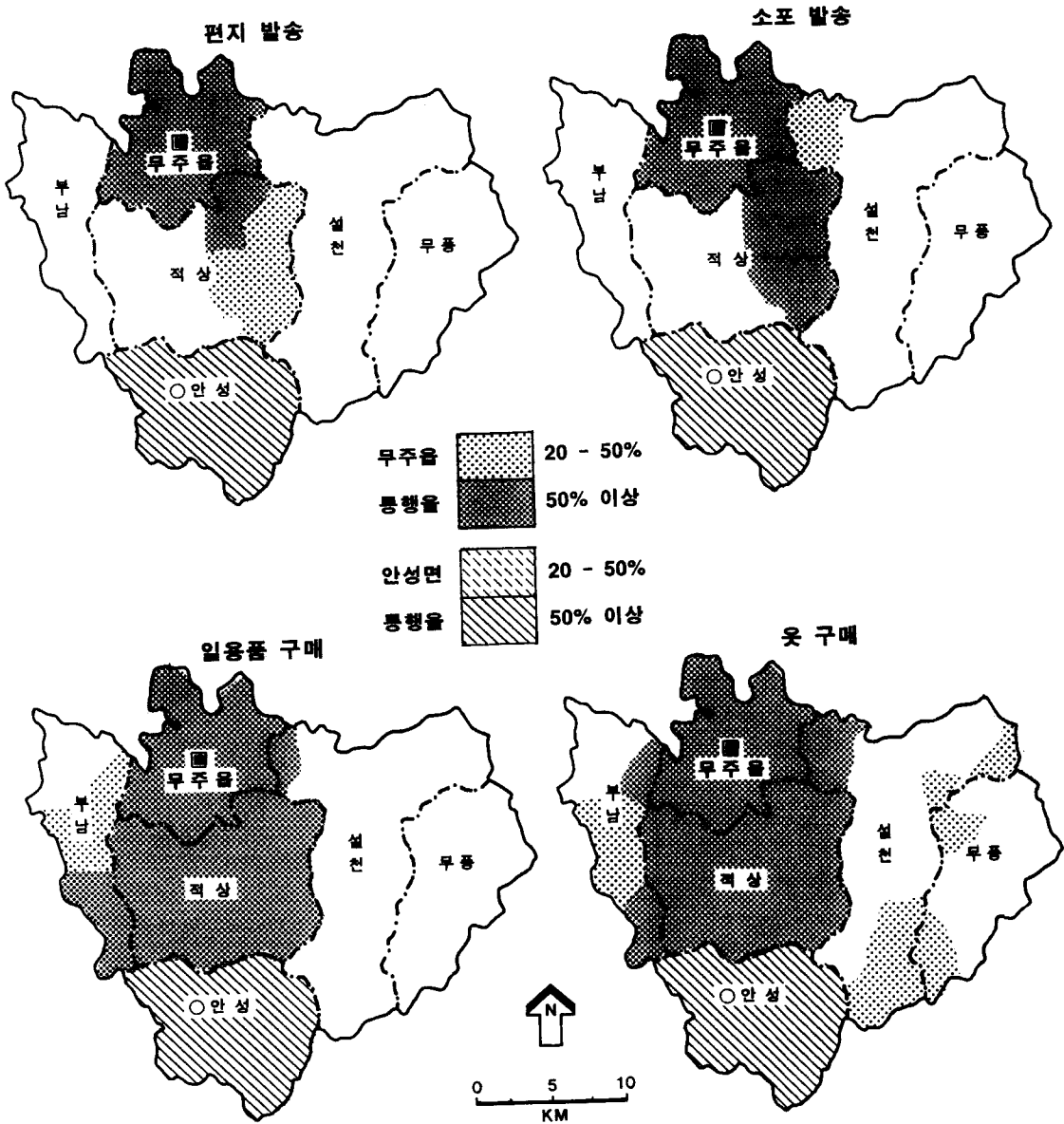


그림 2. 무주군 주민의 무주읍 및 안성면 소재지 통행률

넓어, 편지와 소포 발송의 경우에는 중심읍 인접 면의 적지 않은 부분이 중심읍 배후지로 편입되어가고 있으며, 일용품이나 옷처럼 면 단위 중심지에 이런 기능이 빈약한 경우에는 중심지의 배후지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것을 잘 보여준다. 반면, 2위 중심지 즉 무주군 안성면과 김포군 통

진면 소재지의 배후지 범위는 중심읍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히 작아져서 대체로 해당 중심지 행정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홍성군 광천읍의 경우에도 편지와 소포 발송 배후지 범위는 읍계에서 그리 멀지 않다. 각 군의 두번째 중심지의 상황이 이러하므로, 이보다 하위 중심지들의

### 홍 성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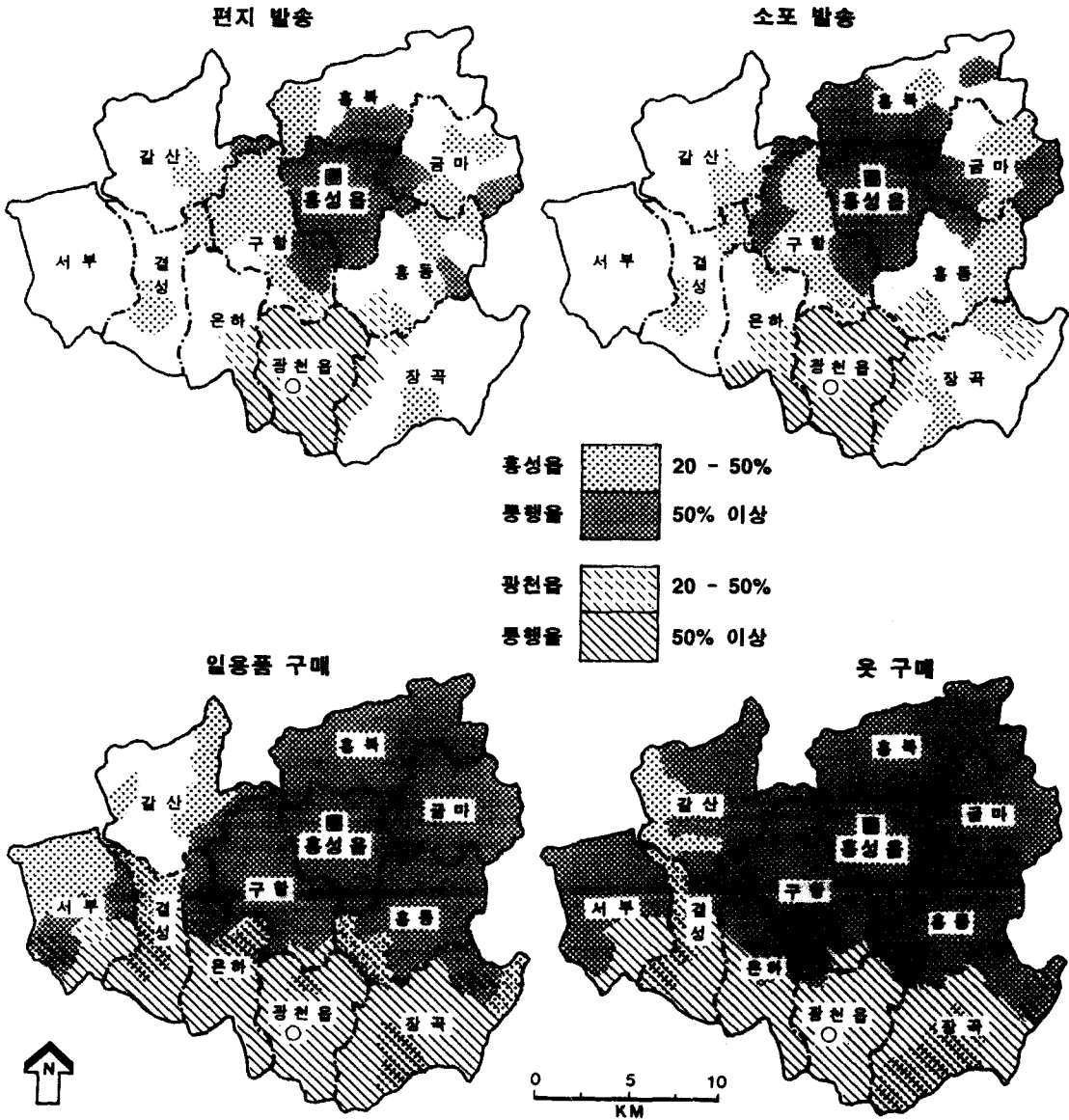


그림 3. 홍성군 주민의 홍성읍 및 광천읍 소재지 통행률

배후지 범위가 더욱 좁은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도에서 세 군은 각기 그 여건에 따라 배후지 범위를 달리한다. 무주읍의 배후지가 인접한 면에 한정되는 데 비하여, 홍성읍과 광천읍의 경우 홍성군 전체를 양분하여 배후지로 삼고 있으며, 김포읍의 세력 범위는 무주읍보다도 좁다.

#### (4) 住民 特性과 中心地 通行

면 주민 표본을 年齡, 教育水準, 職業, 機動性에 따라 나누고, 각 집단의 面外 目的地 通行率을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각 목적지별 통행률을 낱낱이 신는 대신 면의 목적지 통행률로 합한 것은 표에서 자료 제시가 방대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이다.

## 김 포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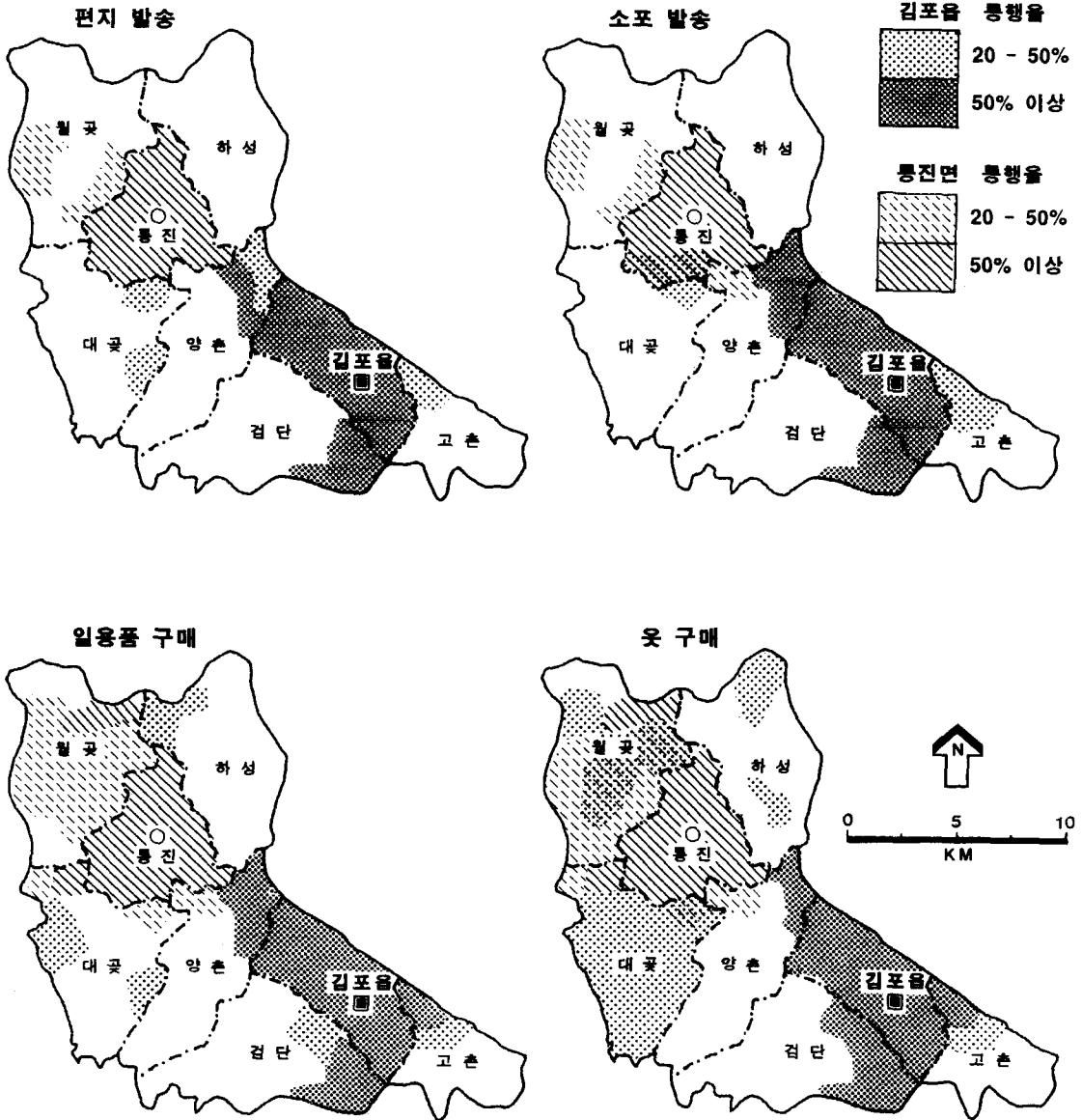


그림 4. 김포군 주민의 김포읍 및 통진면 소재지 통행률

표본의 집단 구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나이로는 29세 이하, 30-39세, 40세 이상의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50세 이상 연령층은 그 표본수가 비교적 작고, 실제 분석 결과로도 40대 연령층과 그 통행 행동에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40대 연령층과 합쳐 제시하였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

학교 이상의 세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직업으로는, 통근 여부를 중시하여 농업직, 비농업직, 및 무직(주부 포함)의 세 집단으로 단순화하였다. 기동성은 승용차 보유 여부로 가름하였는데, 이는 현재 많은 가구에서 오토바이나 트럭 등을 보유하는 추세여서, 승용차 보유 여부에서만 의미있는 구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표 7. 면 주민 중에서 거주지 면 외부의 목적지로 통행하는 비율: 연령, 학력, 직업, 승용차 보유 여부로 본 차이

지표	군	주민 속성	통행 목적별 통행률			
			편지 발송	소포 발송	일용품 구매	옷 구매
연령	무주군	29세 이하	26.8%	32.6%	41.5%	83.3%
		30-39세	6.0	9.9	31.8	50.2
		40세 이상	3.0	7.6	25.7	36.8
연령	홍성군	29세 이하	40.0	47.0	79.1	100.0
		30-39세	17.0	25.1	69.8	89.6
		40세 이상	13.6	22.2	73.1	91.7
연령	김포군	29세 이하	19.4	19.1	19.3	75.0
		30-39세	12.3	14.8	20.1	54.0
		40세 이상	9.2	12.7	22.4	53.7
교육수준	무주군	전문대 이상	11.8%	14.8%	35.2%	71.7%
		고졸	9.2	12.1	29.8	49.8
		중졸 이하	3.7	9.2	29.5	41.6
교육수준	홍성군	전문대 이상	32.0	50.0	78.3	92.7
		고졸	22.7	27.7	73.2	94.7
		중졸 이하	12.7	22.0	71.2	89.9
교육수준	김포군	전문대 이상	19.7	24.8	22.3	70.6
		고졸	12.2	13.3	19.2	54.8
		중졸 이하	7.5	11.9	25.2	54.9
직업	무주군	비농업	9.4%	11.5%	30.3%	54.3%
		농업	4.3	10.4	31.3	41.2
		무직, 주부	5.7	8.3	14.3	57.6
직업	홍성군	비농업	31.2	36.3	71.6	93.9
		농업	11.1	20.6	72.8	90.7
		무직, 주부	24.0	30.8	75.0	92.5
직업	김포군	비농업	16.6	17.9	18.8	57.4
		농업	6.6	9.0	25.8	55.4
		무직, 주부	6.1	13.6	18.8	55.2
기동성	무주군	승용차 보유	6.1%	9.5%	28.5%	52.7%
		승용차 없음	6.3	11.1	30.5	44.5
기동성	홍성군	승용차 보유	22.4	30.9	72.9	91.9
		승용차 없음	16.2	24.3	72.5	91.7
기동성	김포군	승용차 보유	15.0	17.0	20.3	57.8
		승용차 없음	9.3	12.3	21.5	55.3

자료: 설문조사에 의함.

표 7에서 집단차를 보면, 4개 집단구분 지표 중 연령층에 의한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고, 교육 수준과 직업 집단간의 차이가 그 다음으로 드러나며, 기동성으로 본 차이는 다소 모호한 편이다.

연령으로는 20대와 나머지 연령층(30대 및 40대 이상)의 구분이 매우 분명하며, 30대와 40대의 차이는 크지 않다. 특히, 읍 인접 면에 거주하는 20대 연령층의 면외 목적지 통행률은 놀라우리만큼 높아서 무주군에서는 40-50% 수준(우표구입, 편지 발송, 소포 발송, 예금의 지표로 보아 각각 47.4%, 30.0%, 50.0%, 50.0%), 홍성군의 경우 50-60%(57.5%, 51.3%, 63.4%, 51.3%), 김포군은 이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10-30%대(7.2%, 14.3%, 15.5%, 30.3%)에 이른다. 이는 젊은 연령층에게는 해당 면의 공공 시설이 별다른 통행 유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수준으로는 대학교 학력과 그 이하 학력자 집단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며, 고졸자와 중졸 학력자 사이의 차이는 이보다 못하다. 직업으로는 비농업직 취업자(즉, 통근자)가 집에 머물러 있는 농업직 종사자보다는 면외 통행률이 월등히 높다. 기동성 측면에서는 홍성군과 김포군에서는 승용차 보유자의 면외 통행률이 더 높지만 무주군에서는 승용차 보유자의 면외 통행률이 승용차가 없는 집단보다 오히려 낮아서, 기동성과 면외 통행 빈도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다. 군별로는 연령과 교육 수준 지표로는 모든 군에서 집단 차이를 인지하기가 쉬우나, 직업과 기동성 지표에서는 홍성과 김포군에서만 구분이 뚜렷하며, 무주군에서는 집단 차이가 미미하다.

이상의 분석은 주로 편지와 소포 발송, 즉 우체국 이용 목적 통행의 집단 차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일용품과 옷 구매 목적 통행으로 보면 집단 차이가 훨씬 덜하여, 연령으로만 집단 차이가 두드러 질 뿐이고, 교육 수준에서는 통행율의 차이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며, 직업과 기동성으로는 무주군을 제외하면 집단간에 이렇다 할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연령, 교육 수준, 직업 지표간에는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게 마련이다. 본 표본에 대

하여 교차분석을 해보아도,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고 비농업 종사자의 구성비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직업과 학력 간에도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다만, 승용차 보유 여부와 연령은 상관관계가 낮아, 모든 연령층에서 승용차 보유자 비율이 비슷하였다.

이러한 지표간 상관 관계를 종합하여 보자면, 여러 지표로 본 집단 차이는 그것이 각기 별개의 차이가 아니라 연령 지표를 중심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현재 농촌의 젊은이들은 옛 세대보다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비록 주거지는 면이라 하더라도 農外 職業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으며, 그들의 직장은 읍 소재지 또는 더 먼 도시에 위치한다. 따라서 그들의 활동 공간도 면보다는 상위 중심지 위주로 형성되기 마련일 것이다. 우체국 이용 통행율이 20대 젊은 연령층에서 유난히 높은 것도 그들이 단순히 우표를 사고 편지나 부치기 위하여 중심 읍이나 인근 도시로 나간다고 하기 보다는 그들의 활동 공간 자체가 읍과 시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노·장년층의 생활 공간은 거주지 면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반하여, 청년층에서는 면-읍-상위 도시를 잇는 범위이어서, 농촌지역에서는 나이에 따른 여러 개(즉, ① 면, ② 면-읍, ③ 면-읍-상위 도시)의 활동 공간層(layer)이 이루어져 있다고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농촌 지역의 컴퓨터 이용과 보급을 살피는 가운데(허우금, 1994), 그 확산 양상이 농촌 주민의 연령 분포와 관련이 깊음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世代 現象'은 우체국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의 입지 문제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도시의 생활 양식을 익힌 새로운 세대가 농촌 주민의 주역이 될 때에는 농촌생활권이 지금과는 매우 다르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5. 要約과 討論

우리 농촌은 대부분 인구가 줄어 중심 기능을 지탱할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교통 시설 개선과 기동성 향상 등으로 사는 모습도 달라지고 있

다. 이에 우체국처럼 그 이용에 있어 관할구역에 예속되지 않아도 되는 공공 서비스의 이용 상황은 어떠하며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학술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세록을 활용하여 1980년대 중반 이래(1986-1992년) 전국적 수준에서 우체국의 이용 수준을 살피고, 경기도 김포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무주군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주민들의 우체국 이용 행동의 공간적 특성을 밝히려 시도하였다.

전국 차원의 국세록 분석에서는 도시보다 군 소재 우체국의 이용 수준이 낮은데다 1986-1992년 동안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군 내부에서는 읍과 면의 수준 차이가 현저하며, 市나 邑에 인접한 곳에서는 그 이용 수준이 더욱 낮아서 우체국 이용 조차도 이미 상위 중심지를 지향하는 추세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서들이 발견되었다.

무주, 홍성, 김포군의 사례연구 결과, 각 군의 중심읍은 우정 서비스에 있어서도 이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영향력이 인접 면의 상당 부분, 때로는 원격 면까지 펼쳐지고 있어 전국 차원에서의 분석 결과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통행 행동을 나이, 교육 수준, 직업, 기동성 등에 따라 분석하여 본 결과, 나이가 농촌 지역 주민들의 통행 행동 차이를 설명하는 데 가장 유력한 변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는 농촌 주민들의 활동 공간의 범위와 모양이 나이에 따라 여러 層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주지역이 면일 뿐 실제 일하고 사회생활하는 영역은 읍과 시에 더 치우쳐 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농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 공간의 변화는 매우 주목할만한 현상이라고 본다. 또한 3개 사례군 주민의 통행 행동은 해당 군의 여건을 반영하는듯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어, 무주와 김포군에서는 홍성군보다 중심지 지향성이 약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공공 서비스 입지 측면에서 무엇을 시사하는가? 단위 행정구역별로 우체국이 고르게 분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체국 이용 목적 통행에서 상위 계층 중심지로 끝난다는 것은, 무주군처럼 한 면에서 산을 넘어 다른 읍·면으

로 가는 경우라야 관할구역 범위가 통행행동에서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겠으나, 일반 구릉-평야지대에서는 읍·면 구역이란 인위적으로 정한 것에 불과할 뿐 주민들의 활동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옛날에 정하여져 지금은 더 이상 주민들의 활동공간에 부합되지 않는 공공 시설 분포에 대하여 계속 전과 같은 의미를 두어야 하는지 따져볼 때가 된 셈이다. 아울러 3개 사례군 사이에 드러난 차이도 지역 사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 입지 기준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지금의 신세대가 가까운 장래 농촌의 주역이 될 것을 감안한다면 우정 시설 입지 문제를 포함한 각종 농촌 계획에 있어 '세대 현상'을 고려해야 하겠거니와, 학술적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기서 잠시 현행 우정 시설 입지 기준을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①局間 距離와 ②管轄 人口를 우체국 설치 기준으로 쓰고 있다.<sup>3)</sup>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기존 기준에 덧붙여 ③중심지 체계로 본 위계와 ④상위 중심지 특히 시, 읍과의 인접 여부를 농촌지역 우정시설 입지 기준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기준들은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어, 국간 거리와 관할 인구가 우체국 신설을 위한 上限으로 쓰이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제안된 ③과 ④는 기존 시설의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이 제안된 두 기준은 농촌의 생활공간 특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지표일 뿐 아니라, 名目 尺度(categorical scale)이기 때문에 현지 조사에서의 평가작업이 쉽다는 잇점도 있다. 끝으로, 人口密度는 각 지방의 자연환경과 경제여건을 비교적 잘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이 지표를 아울러 쓴다면 사례 군에서 드러났던 바와 같은 지역차를 다루는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검증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본다.

공공 서비스는 그 속성상 공급이 반드시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Lonsdale and Enyedi, 1984), 농촌 지역 서비스 시설의 변화를 상징하는 논의는 형평성 측면에서 이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촌 내부에서의 변화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민간 지배업체의 등장으로 우편시장 구조가 급변하

는 등 밖으로부터의 변화도 거세므로, 현재를 진단하여 시대의 흐름에 대비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정 서비스를 이용자의 입장에서 고찰하였고 공급 측면에서의 검토는 연구의 범위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입지-배분(location-allocation)을 포함한 구체적 입지 대안을 논하는 단계에 이를 수는 없었다.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謝 辭

局勢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체신청 관계자, 그리고 현지 면담 조사 및 설문 조사를 도와주고 응하여 준 茂州, 洪城, 金浦郡의 교육청 및 여러 기관의 관계자와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註

- 1) 전국 면 우정시설의 약 52%를 차지하는 별정우체국의 경우, 평균 세출이 세입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영평, 1993).
- 2) 이현아(1993)의 연구에서도 1985년 이래 기업의 우편물 발송량 비중이 1985년 48.9%에서 1988년 68.9%, 1991년 75.5%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현행 우체국 설치 기준

설치 기준		사무관국	주사국	분국
읍	국간거리	3-5km	3-5km	3-4km
	관할인구	8만명	2만명	1만명
면	국간거리	—	3-4km	5-8km
	관할인구	—	1.2만명	0.8만명

주: 전국 기준 중 邑, 面 부분을 김영식(1990)에서 발췌하였음.

文 獻

高東熙·崔重凡, 1992, 大都市 郵便物 配達の 效率性 提高 方案. 통신정책자료 92-23. 통신개발연구원.

김영평, 1993, 정보사회에 대비한 우편서비스의 민간위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92 통신학술연구과제.

金英植, 1990, “郵遞局 設置 基準 研究.” 통신정책연구 5(4), 66-83. 통신개발연구원.

李正煥, 1987, “韓國農村地域의 類型區分에 관한 研究,” 地理學研究報告 17. 慶熙大學校.

이현아, 1993, “우체국의 역할변화와 代替의 局舍 건설기준.” 우정정보 12(1993 봄), 29-43.

임석희, 1996, “공간조직의 관점에서 본 한국형 정구역의 문제와 개편방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허우궁, 1994, 농촌지역 컴퓨터 이용의 공간확산. '93 통신학술연구과제 보고서.

Askew, I., 1983, The location of service facilities in rural areas: A model for generating and evaluating alternative solutions. *Regional Studies* 17, 305-314.

Bach, L., 1980, “Locational models for systems of private and public facilities based on concepts of accessibility and access opportun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12, 301-320.

Hodgart, R.L., 1978, “Optimizing access to public services: a review of problems, models and methods of locating central facilit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2, 17-48.

Joseph, A.J.E. and Poyner, A., 1982, “Interpreting patterns of public service utilization in rural areas.” *Economic Geography*, 58-1, 262-273.

Lonsdale, R.E. & Enyedi, G. (eds.), 1984, *Rural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Comparisons*. Westview Press, Boulder, Colorado.

Massam, B., 1980, *Spatial Search: Applications to Planning Problems in the Public Sector*. Pergamon, Oxford.

Massam, B. and Askew, I., 1982, “Methods for comparing policies: An



- urban example". *OMEG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Science*, 10 (2), 195-204.
- Nutley, S.D., 1984, "Planning for rural accessibility provision: welfare, economy, and equity." *Environment and Planning A*, 16, 357-376.
- Smit, B. and Joseph, A.E., 1982, "Trade-off analysis of preferences for public services." *Environment and Behavior*, 14, 238-258.
- Thisse, J.F. and Zoller, H.G. (eds.), 1983, *Locational analysis of Public Facilities*. North-Holland, Amsterdam.

## A Reappraisal of Rural Public Service Location: the Case of Postal Facilities

Woo-Kung Huh\*

### Summary

This study examin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postal office patronage in rural areas, in the light of future possible relocation and closures of the postal facilities. Most of private services have flown out small rural central places due to the decrease of supporting population, and there consequently remain only a few public services including government-run post offices at the Myon seats, the lowest level among rural central places in Korea. The small local population and its further decline undermine the rationale for maintaining such public services in depleted rural areas. For the worse of it, the government recently plans to transform the postal system to a quasi-private, corporational structure. One can fear that the profit-seeking nature of the new postal corporation will inevitably force to close many of such small rural facilities.

The study first analysed nation-wide censuses of postal offices for the years of 1986 and 1992. The postal services

examined are per capita number of postal stamps and revenue stamps sold, and letters, parcels, telegrams and monetary transactions handled at the post offices. It is found that, while the usage of postal services has increased substantially throughout the nation during the period of 1986-1992, the increment has largely been occurred by urban post offices rather than by those in Gun seats (i.e., rural counties); and that the gap of the service levels between urban and rural post offices is ever widening.

The study further examined the service differentials among the post offices within rural counties to find that those post offices adjacent to the county (Gun) seats and larger urban centers rendered less amount of services than remote rural post offices, indicating that rural residents tend to partonize larger centers more and more than local Myon seats.

At the second stage of the study,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in Muju, Kimpo, and Hongsung-Gun's. These three counties are meant to represent respectively the remo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suburban, and intermediary counties in Korea. The analyses of survey data reveal that the postal hinterlands of the county seats extend to much of nearby Myons, the subdivisions of a Gun. It is also found that the extent of postal hinterlands of the three counties and the magnitude of patronage are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depending upon the topography, population density, and the propinquity of the counties to metropolitan centers. The findings suggest to reappraise the current flat allocation scheme of public facilities to each of rural subdivisions throughout the nation.

A detailed analysis on the travel behavior of the survey respondents yields that age is the most salient variable to distinguish activity spaces of rural residents. The activity spaces of older respondents tend to be more limited within their Myon, whereas those of younger respondents extend across the Myon boundary, toward the central towns and even distant larger cities. The very

existence of several activity spaces in rural areas calls for an attention in the future locational decisions of public facilities.

The locational criteria, employed by the Ministry of Communication of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a post office, are the size of hinterland population and the distance from adjacent postal facilities. The present study findings suggest two additional criteria: the order in rural central place hierarchy and the propinquity to the upper-level centers of the central hierarchy. These old and new criteria are complementary each other in that the former criteria are employed to determine new office locations, whereas the latter are appropriate to determine facility relocation and closures.

**Keywords:** public services in rural area, the location of post offices, activity space of rural residents, locational criteria of postal service, central place hierarchy, propinquity to the upper-level centers